

2021년 8월 4주 |

키움 ESG Bri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Issue Check:

SEC, 지속가능 펀드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할 것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라벨링을 가진 펀드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지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들을 공개해야 할 것에 대해 언급. SEC는 올해 들어 ESG 정보 공개 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국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펀드 등 상품들에 대해서도 ESG 펀드로 분류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
- 한편 미국은 유럽과 달리 관련법 마련에 있어 이해 관계자들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6월 미 하원에서는 "ESG 공시 및 단순화 법"이 통과되었지만, 공화당은 이를 반대 중. 일부 상장사들 또한 ESG 데이터가 오히려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노동조합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민감하게 반응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그린/지속가능성 펀드에 정보공시 요구 강화 전망



Gary Gensler @GaryGensler · 8월 20일

Investors should be able to drill down and see what's under the hood of funds that market themselves as "green" or "sustainable."



934

224

1.5천



자료: 트위터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8/16~20)

▲ 기후 및 환경 관련

Analysis: U.S. SEC prepares to take on corporate America over workforce disclosures

-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 기업들이 자사 '직원'들과 관련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두고 미국 내 기업들과 대립 중. 민주당원, 노동 조합 및 투자자들의 촉구에 힘입어 SEC는 상장 기업이 인종 다양성, 직원 보상 체계, 직원 이직률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 모색 중.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활발해진 사회 정의 운동으로 인해 기업의 근무환경과 임금 형평성, 고용과 고용유지 정책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이슈는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
 -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브랜든 리스 부국장, "인적 자원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기업이 노동력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 만약 인력 관련 정보 공시가 개선된다면 투자자들은 어느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일부 상장사들은 인적 데이터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노동조합에 의해 악용되는 등 당황스러운 상황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 King & Spalding 로펌의 Amanda Sonneborn는, 고용주들 사이,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
 - 한편 SEC는, 직원 교육프로그램, 보상체계, 인구통계 정보, 건강과 산업안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특정 인적 자본 지표(human capital metrics)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 중.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인종 다양성과 양성 평등, 성적 성향, 나이와 신체 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 가능
- <https://reut.rs/3gbqP2i>

8/16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많은 일자리 만들어 낼 것'

- 문재인 대통령,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감 표현
 - 또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로 평가
 - 아울러 이날 경축사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
- <https://bit.ly/3yVAvFd>

8/17

'코로나 19는 지속가능개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유엔 2021 SDGs 보고서

- UN 20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보고서, 팬데믹이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SDGs의 목표 달성 진행도를 상세히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코로나 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개발도상국의 경제, 교육, 보건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
 - SDGs의 최우선 어젠다는 '빈곤과 기아의 종식'(SDGs 1, 2번)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빈곤율은 증가.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코로나 19, 기후 재난, 무력 분쟁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이러한 결과를 맞은 것으로 판단. 또한 보고서는 '세대적 참사(Generational Catastrophe)'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개발도상국 청소년 세대의 교육 문제를 집중 조명. 보건 분야의 경우 의료시스템 마비, 통계 시스템의 부재로 정확한 데이터조차 수집되지 못하고 이는 상황.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경제 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보고서의 서문을 통해 "코로나 19 창궐 이전부터 일부 SDGs 목표는 달성 진행이 멈추거나 심지어 퇴보했다"며, 코로나 19 이전부터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지속가능 개발이 미진한 것이라고 지적. 또한 보고서는 앞으로의 18개월이 2030년까지의 SDGs 성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 19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의 시작이 될지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강력히 경고
- <https://bit.ly/37PiTz0>

8/17

Why Not Nuclear?

-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 리스크는 향후 문제 해결 및 완화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선진국들이 탈원전을 단행하려는 것인데, 사실 원자력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홍보 PR에서 기인. 사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헐적인 문제들은 추운 지역에서 수요를 감당하기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원자력은 전력 발전 단위당 사망률을 분석했을 때 가장 안전한 전력 발전 에너지원 중 하나
 -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4월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10% 수준인 18GW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Diablo Canyon)을 폐쇄. 만약 이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이 없다면 캘리포니아 주는 단기 전력 조달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 보충을 위해 애써야하는 상황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개국 총 40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데, 2년 전 345GW 였던 원자력 발전량은 현재 빠른 속도로 감소 중. 약 5년 전 리투아니아와 이탈리아는 모든 원자로를 폐쇄했고, 독일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해 사용할 예정.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은 3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원전 모두 중단 가동
 - 원자력 발전은 지난 40년 동안 세 번의 사고를 겪었지만, 원자력 발전과 폐기물 저장에 필요한 기술은 현재 상당히 발전한 수준.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는 원자로에 안정적인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신기술을 개발했고, NuScale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추가 용수나 전력 없이 자체 냉각(self-cool) 될 수 있는 모듈식 원자로 생산 및 테스트를 진행 중. 향후 10년 동안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충분치 않을 것. 원자력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https://bit.ly/3CWbB19>

8/17

8/18	<p>Climate experts are worried about the toughest carbon emissions for companies to capt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국 SEC가 기업들에게 기후 변화 및 탄소배출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 - 캔슬러 SEC 위원장은 7월 말 연설에서 일부 기업이 현재 Scope 1 및 Scope 2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들은 이 수준을 넘어 Scope 3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사실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로, Carbon Trust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탄소 배출로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 중 Scope 3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비중이 약 65%~9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 -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및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Scope 3에 대한 추적 및 정보 공개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 이 가운데 애플과 엑손모빌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Scope 3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를 하고 있으며 Ceres에 따르면 현재 약 3천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탄소 공개 프로젝트 하에서 Scope 3 공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분석. 한편, 기업들이 Scope 3를 측정하고 이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기업 간 Scope 3 데이터의 품질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영역 <p>https://cnb.cx/2UA3G1W</p>
8/18	<p>EGEB: Solar could make up 40% of US power by 2035 – Biden admin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에너지부, '태양 에너지 연구, 채택 및 인력 우선순위'와 관련한 이슈 브리핑 발표. 국가 신재생에너지 연구소(NREL)의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탈탄소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설치를 현재보다 약 3~4배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 또 현재 의회가 태양광 발전 단지(solar farms) 및 제조 시설에 대한 세금 공제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에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면 태양광 에너지로 2035년까지 미국 전력의 40%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 미국 전력의 총 3% 수준) - 또한,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잠재적 노동력 50~150만을 포함, 클린에너지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수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무공해 전력망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전력 공급,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한 클린에너지 생산 작업 전반에 걸쳐 205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 미국 제조업 강화, 송전 및 저장 기술 확장 가속화, 클린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목표를 수립할 예정 <p>https://bit.ly/3iWRXDH</p>
<p>▲ 기타/통합</p>	
8/18	<p>중국, 탄소 배출량 많은 개발 프로젝트 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0개 중국 본토 성 중 10개 성만이 상반기에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 한편 멩웨이 중 발개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광동성과 광시성, 윈난성, 장쑤성을 포함한 9개 성과 지역이 올해 상반기에 에너지 소비량이 늘었다며 "국가 에너지 관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 올해 1분기 에너지 소비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와 중국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멩웨이 대변인은 따라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덧붙여 국가발전개혁위는 국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에 35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요구 수준을 지키지 못한 프로젝트는 중단시키겠다고 약속 <p>https://bit.ly/3j7Ab0C</p>
8/18	<p>"기업, ESG 추진시 수익성 고려해야...정부는 규제 관련 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연구원의 'ESG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ESG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금액은 '14년 21.4조 달러에서 작년 40조 5천억 달러로 2배 가량 증가 - 보고서는 ESG가 기업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는 가운데 ESG 중 환경(E)과 사회(S)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 활동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달린 만큼, 지배구조(G)가 ESG를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 또한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ESG 컨트롤타워 산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 - 또한 ESG가 새로운 기업 경영 방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 ESG를 개별 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기업이 ESG 도입 비용과 수익성을 연동시켜 이를 수치화한 모델로 ESG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p>https://bit.ly/3xXKSqT</p>
8/19	<p>자본연구 '국내 금융사, ESG 경영 정비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연구원, 17일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ESG 경영을 사업과 연계하는 측면에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ESG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제한적이라 이 부분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 -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크레디트스위스, 노무라 등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의 10개 주요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외 금융사들은 단기간 내 ESG 경영의 견고한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결론. 해외 금융회사들은 ESG 이슈를 다루는 조직구조의 구축과 더불어, ESG 경영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명확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두고 있으며, ESG 경영 담당자에게는 전문성과 더불어 결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 또한 IB의 경우, ESG 채권 인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해외 금융사들은 주요 사업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IPO, M&A 자문 및 리서치 업무에서 ESG는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됐고, 브로커리지 사업에서는 ESG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공급과 함께 ESG 투자 수요 증가에 부합한 다양한 투자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음. 자산운용 및 관리 사업에서도 ESG 투자전략을 적용한 다양한 펀드 및 ETF가 출시되고 있으며, 소매금융 사업에서도 그린대출, 그린 신용카드 등 여러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는 설명 <p>https://bit.ly/382PbGI</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산업/기업 ESG 동향 Update (8/16~20)

▲ 기후 및 환경 관련

8/16	<p>LG 에너지솔루션, 니켈과 코발트 대량 확보 계약...친환경 공법 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배터리 생산의 핵심 원재료로 쓰이는 니켈과 코발트 등 광물이 생산 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아동노동 착취 등 이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와 연계된 ESG 리스크는 해당 광물을 수입해 쓰는 완제품 제조업체에까지 영향 -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배터리 원재료 생산업체인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AM)'사와 니켈 가공품(MHP·니켈 및 코발트 수산화 혼합물)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 해당 계약에 따라 LG 에너지솔루션은 AM 사로부터 '24년 하반기부터 6년간 니켈 7만 1000t, 코발트 7000t을 공급받게 됨 - 특히 AM사는 니켈과 코발트를 채굴하는 광산 활동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광물 찌꺼기(광미)를 건조·축적(Dry Stacking) 방식으로 처리해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p>https://bit.ly/3smh0s3</p>
8/16	<p>EGEB: Here are the 3 biggest trends in rooftop solar and battery stor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는 EnergySage, Solar Marketplace Intel 리포트를 통해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수백만 개의 태양광과 배터리 설치 비용 견적(quotes)을 분석한 결과 공개 - 리포트에 따르면 지붕형 태양광(rooftop solar)과 배터리 저장장치(battery storage) 시장에 다음의 3가지 주요 트렌드 자리 1) 태양광 발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배터리 저장장치 가격은 점차적으로 인상. 태양광 가격 전년대비 6% 이상 하락한 반면, 배터리 저장 장치 가격의 중간 값은 kWh 당 10% 상승 2) 지난 한 해 배터리 3사(Enphase Energy,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가 배터리 저장 시장 내에서 85% 점유율 차지. 한편 Q Cells와 NeoVolta는 테슬라를 제치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배터리 브랜드로 자리매김 3) 태양광 대출 금리가 훨씬 친(親)소비자적으로 전환 중. '21년 상반기 태양광 대출금리는 2.99%로 하락 <p>https://bit.ly/3snDCDy</p>
8/17	<p>U.K. Plans Subsidy-Driven Hydrogen Boost on Path to Net Ze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英 정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 소비의 최대 35%를 수소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발표. - Kwasi Quarteng 장관, 수소가 향후 영국의 차량연료 공급, 공장 전력 공급, 가정용 난방 방식을 변화시켜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고 설명.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에 약 40억 파운드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 과거 해상풍력 도입을 촉진하는 데 사용된 인센티브와 유사한 원리로 투자금을 활용할 예정 - 정부는 수소 생산을 위해 수소 에너지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10년 동안 다른 재생에너지와 같이 경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 2023년 1분기에 첫 계약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까지 저탄소 수소 비즈니스 모델을 마무리할 예정 <p>https://bloom.bg/3g8pEAH</p>
8/17	<p>U.S. Solar Group Pushes Back Against China's Offshore Pla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태양광 제조업체에 법률자문 제공 중인 Wiley Rein LLP,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다른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해 미국의 관세 제도를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 - 현재 중국이 태양광 패널 제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중국 회사들이 태양광 모듈 조립의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상황 - 탄원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양광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명백히 미국의 관세 제도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소재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청원서에 담긴 중국 태양광 제조 업체들은 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Co., Trina Solar Co., JinkoSolar Holding Co., JA Solar Technology Co 등 - 한편, 이 같은 미국 태양광 업계의 요청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 됨. Canadian Solar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태양광 패널이 미국의 세관에 억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p>https://bloom.bg/3iQ2nFf</p>
8/18	<p>Analysis: Green-push dilemma: China's steel curbs could cripple price control effor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Co2 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206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한 바 있음. 그 중에서도 철강은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탈탄소화 이슈에 있어 중요한 산업. 철강 산업은 중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 차지.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중국의 Baowu 그룹은 철강 생산량 감축은 이제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발언 - 그러나 작년 코로나 19 섣달 해제 조치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 저렴한 자금 조달 비용, 글로벌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이 회복되자 Co2 배출량도 급증. 중국의 지난해 철강 생산량은 10억 6,50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탄소 배출량도 사상 최고치. 이에 따라 올해는 조강 생산량을 2020년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강 제조업체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1년 상반기 대비 10% 감축해야 함 - 한편 경기 부양에 따른 제조 및 건설업 호황 속에서 철강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에 근접, 강제로 공급을 축소시키면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딜레마 발생.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향후 몇 년 동안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며 결국 중국의 공장 가동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일각에서는 중국이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철강 수출 관세를 인상시키고, 철강 수입량을 증가시켜 공급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p>https://reut.rs/3z1O2v6</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8/16~20)

▲ 주식 및 펀드 시장

8/16	<p>JPMorgan Plots Derivatives Path Into New Era of ESG Fin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P 모건, 동사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에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기 위해 파생 상품으로도 ESG 투자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발표. JP 모건은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Enel SPA와 체결한 통화스왑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통화스왑 계약은 기존과 달리 JP 모건과 Enel SPA가 설정한 ESG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이자 수준이 달라지는 원리 - Deutsche Bank AG, NatWest Markets 등 다수의 경쟁자들 또한 ESG 통화 및 금리 헤지 상품으로 해당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가운데 그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평등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그러나 이에 대해 JP 모건은 고객들이 금융 리스크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ESG 파생 상품 개발의 목적이며, 그린 본드와 같은 소수의 특정 상품으로 ESG 투자를 제한하기 보다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상품군에 ESG를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p>https://bloom.bg/3yTnPPr</p>
8/17	<p>유럽 ESG ETF 유입자금 전체 ETF의 절반 넘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ESG ETF에 유입된 자금은 656억 달러로 이는 전체 ETF로 유입된 자금 1300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Trackinsight의 아일링 장 ESG ETF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기후 위기의 충격은 모두에게 명백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ESG 투자 자금 증가는 유럽 투자자들의 생각이 변해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 (Trackinsight) - 현재 전 세계 ESG ETF 투자자금은 3250억 달러로 지난해의 88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올해에만 1000억 달러가 유입. ESG ETF 상품도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74종의 ESG ETF 상품이 새로 출시된 상황 <p>https://bit.ly/37LopCS</p>
8/19	<p>ESGs to enter mainstream CLO market within 5 years: Morgan Stanl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26년까지 ESG에 대한 우려가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 특히 전세계 ESG 중심의 채권형 펀드는 2016년 말 630여 개에서 현재 1,200여 개 수준으로 지난 5년 간 거의 2배 증가 - 올해 초 Citi 그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CLO 매니저들의 20-40%가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2년 동안 신규 CLO 발행에 ESG 팩터를 통합할 것이라고 응답. 게다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최근 그 어느 곳 보다 ESG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달 초 JP 모건은 ESG를 주제로 한 투자 상품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생상품에도 ESG를 새롭게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ESG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여전히 CLO 시장 내에서 ESG 채택은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 특히 비상장 기업들의 ESG 관련 정보 공시나 관리자들과의 재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ESG CLO 투자자들은 투자 진행 시 다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또한 테마형이나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CLO는 아직까지 발행된 바가 없음 <p>https://yhoo.it/3z8zJVF</p>
<p>▲ 채권 시장</p>	
8/17	<p>교보생명, ESG 채권 3000억~5000억 발행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보생명, 우수한 신인도와 우량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ESG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발행 규모는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오는 2023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 - 특히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을 ESG 채권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며, 교보생명은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계획 <p>https://bit.ly/3svRDPz</p>
8/19	<p>Baidu sees robust demand in \$1 bln bond issue despite China regulatory concer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두가 \$10억 규모의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5.5년 만기 채권과 10년 만기 채권으로 각각 \$3억, \$7억 자금 조달한 것으로 집계 - 바이두에서 발행한 5.5년채는 미국 국채 대비 가산금리가 +115bp 정도, 10년채 경우 미국채+150bp 정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제로는 각각 +83bp, +113bp 수준. 조달 자금은 부채 상환과 사내 ESG 관련 프로젝트에 활용 될 예정 - 한편 중국 규제당국은 다수의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규제 및 벌금 부과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최근엔 반경쟁적 관행과 데이터 보안에 관한 신규 규정을 공표. 이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올해 \$1,212억 규모의 달러채 자금 조달에 성공, 이는 지난해 동 기간 \$1,266억에 비하면 소폭 부족한 수준 (Dealogic) <p>https://reut.rs/3syE1b</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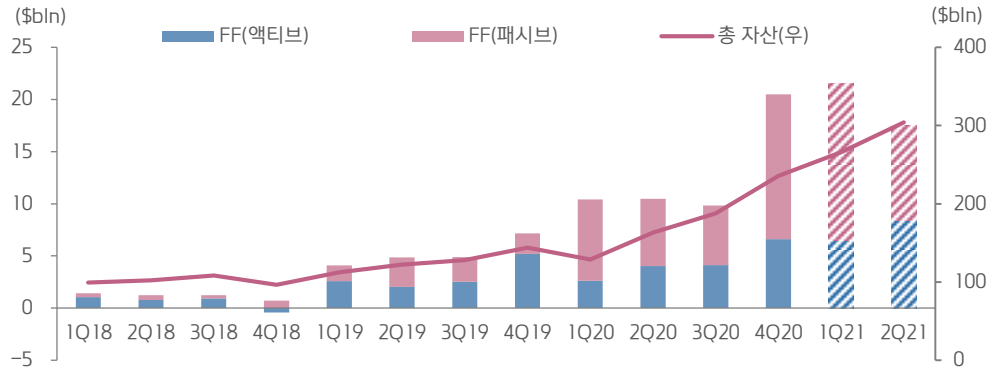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효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 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5/24~25	유럽	EU 정상회의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2050 탄소중립위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유럽 기후법 승인	-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 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30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될. 이 외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배출권거래제 도입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3분기 중	유럽	ESAP 설립 입법안 상정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탄소중립 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황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월까지는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중-EU 탄소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탄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식서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중	한국	K-ESG 평가지표	- 산업통상부, 한국형 ESG 지표 표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안 발표 예정 - K-ESG 평가지표란,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던스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로 초안은 국내의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한국	K-탄소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탄소노미 마련.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이르면 9월, 늦으면 연말로 연기
연내	한국	ESG 포털 구축	-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도록 ESG 정보공유 플랫폼(ESG 포털) 구축 예정 - 더불어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비롯해 ESG와 투자성과를 연동한 지수와 ETF도 준비 중. 환경 쪽에서 배출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 3개 정도를 내고, 사회 쪽에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아세안	ASEAN 탄소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탄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탄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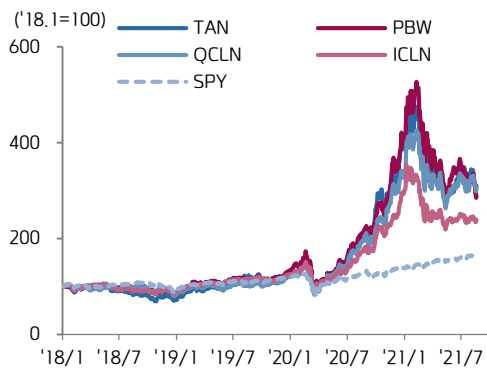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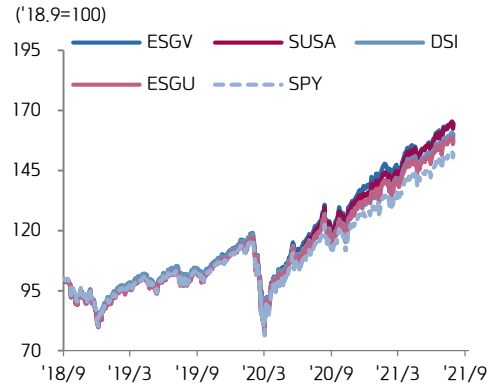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6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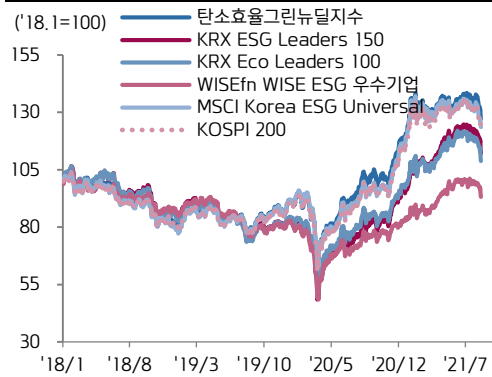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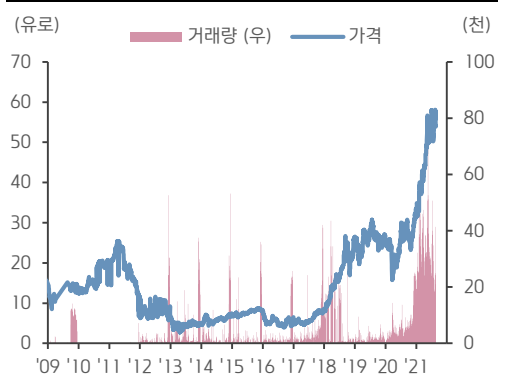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주간 수익률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21,360.0	-0.6	+1.6	+7.2	+18.2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6,677.3	-3.9	-6.9	-6.0	-3.0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6,505.3	-2.3	+1.2	-0.4	+9.3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6	6,057.8	+0.4	-0.8	+0.4	-19.7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5,090.6	-0.6	+1.5	+7.7	+17.8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965.8	-0.0	+2.6	+8.6	+20.9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836.8	+0.1	+2.6	+8.5	+21.1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694.4	-0.2	+2.5	+8.5	+20.9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408.8	-0.3	+2.1	+8.0	+20.3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2,982.7	-3.8	-7.0	+1.5	-22.5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2,518.8	-4.5	-3.8	+5.0	-10.2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479.8	-2.6	-1.5	-1.4	+5.7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1,953.4	-0.3	+4.9	+10.5	+24.3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1,724.4	-7.9	-10.7	-5.6	-27.5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	1,454.9	+0.1	-0.1	+1.7	-1.4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438.6	-0.7	+1.6	+6.8	N/A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231.7	-0.2	+4.5	+8.9	+23.3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187.2	-0.4	+1.9	+7.2	+18.4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1,151.5	-0.6	+6.3	+10.8	+25.3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082.1	-1.0	+1.7	+1.3	+16.9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1,072.6	-5.3	-1.3	+2.8	+14.2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1,040.5	-2.4	-0.6	-1.1	+13.3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996.6	+0.0	-0.3	-0.2	-0.6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985.7	-2.7	-1.0	-1.6	+12.5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898.3	-3.3	-4.3	-0.1	-15.7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880.4	-1.5	+0.3	+3.0	+12.7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38.2	-3.8	-5.5	-3.9	+0.9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834.2	+0.4	+3.2	+14.4	+21.0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806.9	+0.2	-0.3	+2.8	-1.5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700.3	-0.4	+1.7	+7.4	+19.5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03.6	-2.5	+0.3	-0.6	N/A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597.4	-2.4	+5.6	+4.7	+45.2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52.7	-1.7	+0.1	+1.0	+4.8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508.1	-0.6	+2.1	+7.5	+19.3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507.1	-1.9	+4.1	+9.8	+20.4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76.5	+0.0	+2.6	+9.4	+19.5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425.4	+0.1	-0.1	+1.5	-1.2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420.8	-4.5	-0.8	+4.4	+12.0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	405.5	-0.6	+1.7	+8.1	+19.4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04.9	-2.5	-3.5	+2.9	-1.1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391.7	-3.5	-5.6	-2.7	-19.3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89.9	+0.5	+1.7	+0.0	-7.6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59.4	-0.8	+0.9	+10.3	+12.7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359.1	-0.3	+3.7	+8.6	+21.7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52.3	-4.2	-5.8	-6.6	-14.1

자료: Bloomberg, 주) 2021-08-2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313.0	-0.5	+1.6	+7.3	+19.4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95.5	-1.2	-0.4	+7.5	-5.2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69.7	-0.8	+0.2	+5.6	+15.7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	264.7	+0.1	-0.2	+1.3	-2.2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	259.7	-0.5	+1.5	+6.6	+18.5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50.2	-4.7	-2.4	+14.0	+15.0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49.2	-2.4	+2.1	+0.1	+21.8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43.4	+0.2	+0.5	+3.1	-0.5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242.8	-1.5	+1.9	+1.8	+9.7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40.9	-2.2	+1.1	-0.4	+8.5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217.2	+0.2	-0.3	+2.5	-1.8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13.4	+0.0	-0.3	+0.8	-0.9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205.7	-2.2	+1.8	+0.2	+9.8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02.1	-7.5	-6.4	+8.9	+7.4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85.8	-4.2	-8.0	+10.2	+0.2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79.8	-1.3	+1.3	+4.6	+15.6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73.7	-1.2	+1.8	+4.8	+14.8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73.1	+0.0	-0.0	-0.0	-0.1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71.1	-0.5	+1.8	+7.1	+18.8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69.3	-4.0	-7.3	-7.0	-4.6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69.1	-0.1	+0.5	+9.1	+14.6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	156.7	-3.2	-3.3	+0.2	-16.9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49.0	+0.1	+2.0	+8.4	+19.2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	140.9	-2.1	+1.1	+0.9	+9.5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30.6	-0.3	-2.8	+0.4	-12.6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18.7	-0.7	+0.5	+6.5	+11.7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5.4	-1.5	+0.3	+2.8	+12.4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15.2	-0.1	-0.3	+0.7	-0.6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06.8	-4.7	-7.5	-4.6	-0.3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98.6	+0.0	-0.4	-0.2	-1.4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7.4	-0.5	+2.4	+6.1	+19.4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6.4	+0.1	-0.2	+1.2	-1.5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93.6	-0.7	+2.3	+4.0	N/A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90.5	-0.5	+1.8	+8.6	+18.9
XVW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83.7	-0.3	+1.9	+7.6	+19.2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5.3	-2.0	+2.5	+2.8	+20.7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61.5	-1.3	+0.6	+8.2	+16.8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57.6	-1.0	+4.5	+7.9	+20.6
GSFP	The Goldman Sachs Future Planet Equity ETF	ESG	0.75	57.3	-1.6	+2.3	N/A	N/A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37.6	-3.1	-8.9	-14.1	N/A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7.2	-0.0	+3.2	+9.6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4.7	-0.4	+2.0	+7.2	+17.3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33.2	-1.9	+1.1	-0.6	+15.8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2.3	-2.7	-5.7	-8.8	N/A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2.2	-3.7	-6.5	-5.9	+0.1

자료: Bloomberg, 주) 2021-08-2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0.5	-0.5	+1.3	+7.0	+16.9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 Sovereign ETF	ESG	0.35	30.4	-0.1	-0.8	+0.3	-3.2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ESG	0.12	30.2	+0.2	-0.3	+2.7	-1.5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7.0	-0.3	+2.5	+7.8	+19.2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7.0	-0.5	+1.8	+7.1	+19.3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5.3	+0.2	-0.0	N/A	N/A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Y Corporate Bond ETF	ESG	0.20	24.3	-0.2	-0.7	+0.2	-0.0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1.0	-1.0	+2.1	+1.8	+21.2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20.7	-1.0	+0.5	+18.5	+12.8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20.6	-4.6	-7.4	-5.8	-1.9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2	-1.1	+0.3	+2.8	+10.2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8.8	-2.1	+1.7	+0.0	+8.1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18.6	+0.4	+2.6	+4.1	+14.9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8.3	+0.9	+4.4	+3.3	+8.7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4.9	-1.4	-2.0	+1.5	+7.3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8	14.7	-4.1	+1.8	+3.6	+10.9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13.5	-1.9	+1.6	-1.8	+16.4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2.9	-3.3	-4.8	-2.3	+2.3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7	-1.9	+1.2	-0.2	N/A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5	-1.7	+2.7	+2.7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3	-1.9	+1.1	-1.8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0.2	-6.6	-11.4	-8.5	-6.3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8	-1.1	+0.2	+9.1	+12.1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3	-2.8	-1.8	-1.0	+18.7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8	+0.5	+2.1	+8.2	+22.3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100 ETF	청정에너지	0.87	8.3	-5.7	-2.1	+2.1	-0.7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9	-1.7	+1.0	+0.9	+10.4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8	+0.3	-0.2	+2.8	-2.0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8	-0.8	+0.3	+2.5	+7.4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64	7.5	-0.7	-0.0	N/A	N/A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7.5	+0.2	+2.0	+7.7	+18.7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8	-0.5	+0.1	+2.3	+4.6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5.6	-0.3	+0.0	+2.1	+3.1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6	-1.3	+1.7	+1.9	+9.6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5	-2.3	-0.0	-3.3	+9.1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5.5	+0.2	+1.6	N/A	N/A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5	-1.1	+2.8	-2.3	+21.5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5.3	-1.5	+3.4	+7.3	+9.3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39	5.0	-1.9	-1.5	-1.8	N/A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0	4.1	-1.3	+4.4	+7.5	N/A
LGBT	LGBTQ+ ESG100 ETF	ESG	0.75	4.0	-0.6	+0.8	+6.9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3.7	-0.3	+2.9	N/A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2.4	+0.3	+1.4	+7.0	+20.7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1	-0.1	-1.6	N/A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1	-0.8	+1.1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8	-2.1	-0.3	-0.1	+19.2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1	-4.8	-8.8	N/A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8-2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https://bit.ly/3c8s7se
2021/08/11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글로벌 연기금과 펀드의 ESG 투자 https://bit.ly/2XmL6eu
2021/08/0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2주) https://bit.ly/3g2EKHK
2021/08/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2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xugtQU
2021/08/0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1주) https://bit.ly/3jPD1H5
2021/07/26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5주) https://bit.ly/3A0GLAn
2021/07/1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4주) https://bit.ly/3zwIBVV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https://bit.ly/3imCdsG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https://bit.ly/36uDxnC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https://bit.ly/3hfBRER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https://bit.ly/3gYwU2C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https://bit.ly/35GxDix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https://bit.ly/3gjAleM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https://bit.ly/3uR3veJ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https://bit.ly/3i283vZ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q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Qj0Yfx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t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t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k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O4szl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t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qxp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f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SOcif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O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S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